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뉴딜
	배포일시	2021. 9. 24.(금) / 총 7매(본문3, 참고4)	
담당 부서 철도운영안전과	담 당 자	• 과장 조성균, 사무관 전성진, 주무관 김건호 • ☎ (044) 201-4604, 4608	
보 도 일 시		2021년 9월 27일(월)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9. 27.(월) 06:00 이후 보도 가능	

철도 안전 세계(적) 전문가 한자리에 제31회 국제철도안전협의회(IRSC) 서울에서 열린다

- “철도안전과 새로운 도전” 주제로 10월 12일부터 3일간 온라인 개최 -

□ 전 세계 철도안전기술의 개선과 발전방향을 논의하고 철도안전의 축적된 경험과 교훈을 공유하기 위한 국제 포럼인 ‘제31회 국제철도안전협의회(IRSC)*’가 내달 12일부터 서울에서 열린다.

* IRSC : International Railway Safety Council

○ 국제철도안전협의회는 1990년부터 시작한 철도 분야의 대표적인 국제 회의로, 16개 국가의 정부기관, 연구기관, 운영기관 등 26개 핵심기관*(Core Group)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매년 세계 각국 50여개 기관의 철도안전전문가가 참석하여 철도안전과 관련된 정책 등을 논의해 왔다.

* Core Group member(26개) : 정부기관(13), 연구기관(3), 운영기관(6), 국제기구(1), 노조(3)으로 구성되며,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 핵심기관으로 활동 중

○ IRSC는 매년 유치경쟁을 통해 순회 개최하며, 올해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 아시아에서 일본(2회), 중국(3회), 인도(1회) 개최

□ 이번 회의에서는 “철도안전과 새로운 도전(Railway safety - New challenge)”이라는 주제로 철도안전관리와 신기술의 융합, 안전문화, 종사자 안전, 국제협력 등 4개 분야에서 국내외 총 21개의 주제발표(국내 6개, 국외 15개)가 이뤄진다.

< 제31회 IRSC 행사 일정 >

10.12.(화) (1일차)	10.13.(수) (2일차)	10.14.(목) (3일차)
개회식 및 기조연설	<세션 3> 안전문화(운영) 발표(3건) 및 토론	<세션 5> 국제협력 발표(5건) 및 토론
<세션 1> 철도안전관리와 신기술의 융합 발표(5건) 및 토론	<세션 4> 종사자 안전 발표(5건) 및 토론	철도안전 선언문 낭독
<세션 2> 안전문화(정책) 발표(3건) 및 토론	핵심그룹 회의	폐회식 (핵심그룹 회의 내용 발표, 폐회사 등)

□ 주요 일정은 다음과 같다.

- (개회식)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한석윤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원장이 개회사를, 이현승 국회 국토교통위원장과 프랑소와 다벤느(Francois DAVENNE) 국제철도연맹(UIC*) 사무총장이 축사를, 조지프 도플바워 (Josef DOPPELBAUER) 유럽철도국(ERA**) 최고경영자가 기조연설을 한다.

* UIC (International Union of Railways): 철도 국제교류 증진 등 수행 기관

** ERA (European Union Agency for Railways): 유럽철도 상호수용성 및 안전관리 기관

- 기조연설에서는 ‘유럽 철도안전 정책의 성과와 미래 전략’을 주제로 유럽 철도안전의 신기술 적용 및 인증 사례, 안전문화 개선 정책, 철도 종사자 관리 및 국가 간 상호인증 체계에 관해 소개할 계획이다.

- (세션진행) 이번 IRSC 행사에는 “안전문화와 종사자 안전관리”를 주제로 국제철도연맹, 벨기에, 중국, 일본, 아일랜드 등 각국의 철도 안전 전문가가 주제발표와 토론을 진행하여, 관련 경험과 지식을 공유한다.

- (폐회식) 폐회식에는 국제철도안전협의회 사무총장인 커비 장(Kirby Jang)의 철도안전의 향후 방향에 관한 연설과 행사조직위원회(위원장 : 김복환 철도안전정책관)의 공동선언문 낭독 및 폐회사가 진행된다.

- 특히, 이번 IRSC 행사의 3일 차에는 철도안전에 있어서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정책 원칙을 IRSC 최초로 규명한 ‘철도안전 서울선언문’이 공표될 예정이다.
- 본 선언문에서는 IRSC 참여국들이 공감하는 철도안전 관련 기술 개발에서의 주요 이슈, 안전 문화의 중요성, 철도 종사자와 이용객을 위한 통합안전관리체계, 철도 산업 육성을 위한 국제협력의 중요성 등을 표명할 것이다.
- 국토교통부 김복환 철도안전정책관은 “우리나라 철도 안전도는 그동안 선진국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향상되어 왔으며, 철도산업분야도 비약적 성장을 이뤄냈다”면서,
 -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 대비한 방역조치 등을 철저히 하여 제31회 국제철도안전협의회 개최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본 행사를 통하여 그동안 대한민국이 철도안전 분야에서 이루어낸 성과를 전 세계에 알리고 세계(적) 철도안전 기술발전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제31회 국제철도안전협의회(IRSC)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 및 사전 참가신청 방법은 행사 공식 누리집(www.irsc2021.com)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철도운영안전과 전성진 사무관(044-201-4604)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추진배경**

- 고속화와 함께 철도는 과거 지역 교통수단에서 국가간 교통수단으로 변모하고 있으며, 안전·기술분야 국제협력도 증가 추세
- 우리나라의 우수한 철도안전 및 철도기술 수준을 홍보하고, 주요 철도국과 협력체계 구축

□ **행사 개요**

- (장소 및 일정)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오명홀 / ‘21.10.12(화)~14(목)
- (참석대상) 16개 국가의 26개 핵심기관(정부기관·국제기구·연구기관·운영기관), 철도안전관련 국내외 기관 등 국내·외 200여 명 온라인 참석
- (토의주제) “철도안전과 새로운 도전”을 주제로, ①철도안전관리와 신기술의 융합, ②안전문화, ③종사자 안전, ④국제협력 등 4개 분야
- (진행방식) 방역지침에 따라 국내 내빈 및 진행자는 최소 인원 으로 현장 참석하고, 해외참가자는 온라인 화상 회의 참가

□ **행사 계획(안)**

날 짜	행 사 내 용
10.12.(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회식(장관님 축사, IRSC 한국개최 홍보영상 상영 등) · 주제발표 및 토의(스마트 안전, 위험도 관리, 안전정책 등)
10.13.(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제발표 및 토의(안전문화, 종사자 안전 등) · 핵심그룹 회의
10.14.(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제발표 및 토의(철도 상호운영성, 국제협력 등) · 철도안전 선언문 낭독 · 폐회식(핵심그룹 회의 내용 발표, 폐회사 등)

INTERNATIONAL RAILWAY SAFETY COUNCIL 2021



제31회 국제철도안전협의회

2021년 10월 12일 ~ 14일(3일간)



주제

철도안전과
새로운 도전

 기술 철도안전관리와 신기술의 융합	 문화 안전문화	 사람 종사자 안전 강화	 협력 국제협력
-------------------------------------	-----------------------	----------------------------	-----------------------

일정

- | | |
|---------------------------------|---|
| <p>10.12.(화)
1일차</p> | <p>16:00 ~ 17:00 · 개회식(축하공연, 장관님 개회사, 축사 등) 및 기조연설</p> <p>17:10 ~ 19:15 · 발표 및 토론 - 철도안전관리와 신기술의 융합</p> <p>19:30 ~ 20:55 · 발표 및 토론 - 안전문화(정책)</p> |
| <p>10.13.(수)
2일차</p> | <p>16:00 ~ 17:25 · 발표 및 토론 - 안전문화(운영)</p> <p>17:40 ~ 19:45 · 발표 및 토론 - 종사자 안전</p> <p>20:00 ~ 21:00 · 핵심그룹 회의 (비공개)</p> |
| <p>10.14.(목)
3일차</p> | <p>16:00 ~ 18:05 · 발표 및 토론 - 국제협력</p> <p>18:15 ~ 18:45 · 철도안전 선언문 낭독</p> <p>19:15 ~ 20:00 · 폐회식(핵심그룹 회의내용 발표, 폐회사 등)</p> |

철도안전 선언문

2021년 10월 12일~14일 대한민국 서울에서 제31회 국제철도안전 협의회(IRSC)가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 참석한 각국의 정부기관과 운영기관, 연구기관 등 참석기관은 철도의 안전도 향상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기술이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고 지역 및 국토의 발전과 국가 간 상호 번영에 크게 이바지 할 수 있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 하고, 철도의 안전도 향상을 위한 우리의 공통된 신념을 담아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우리는 AI, IoT, Big Data 등 4차 산업 혁명 기술의 응용이 철도의 안전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혁신적인 방안임을 인정하며, 이러한 기술들을 실시간 데이터 중심의 사고 예방형 안전관리 체계의 개발, 인간 에러를 최소화하는 Big Data 기반 지능형 관제 시스템, 철도 고속화에 걸맞는 자율주행체계, IoT 기반 철도 시설, 차량 및 설비 유지관리 시스템 구축 등에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함께 모색하여 나갈 필요성을 인지한다.

2. 우리는 긍정적인 안전 문화, 정책 및 적절한 제도가 동반되지 않을 경우, 지속 가능한 철도 안전 향상을 이룰 수 없다는 철학을 인지한다.

또한 이러한 문화적 환경을 이루는 축에 철도 운영주체의 안전관리와 정부기관의 안전정책이 긍정적인 철도안전 확보의 필수 동인임에 인식을 같이하고, 위험도 정보의 안전관리체계, 자율보고제도 기반의 잠재적 사고위험관리 제도, 철도안전관리 체계 실효성평가 제도 등 철도안전 향상을 위한 정책과 제도 개발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기로 한다.

3. 우리는 철도종사자와 이용객의 안전이 철도 안전의 궁극적 목표임에 인식을 같이 하고, 철도의 안전관리 강화와 철도종사자 및 이용객의 안전확보를 위한 기술개발, 비상 시 대응능력의 향상을 위한 방안을 함께 모색하여 나가기로 한다. 또한, 종사자에 대한 지속적, 체계적, 전문적인 교육이 효과적인 첨단 안전시스템의 운영에 필수적인 요소임을 알고, 이를 실천하는데 국가적 노력을 기울인다.
4. 우리는 대륙 간 철도를 이용한 여객 및 물류의 국가 간 이동이 철도산업의 일부임을 인정하고, 이를 위해 상호운영성 확보를 위한 표준 개발, 안전인증의 국제화 등 상호 간의 기술교류와 정책 협력을 전개할 필요성을 인지한다. 또한, 전 국민이 수요층인 국가 기간산업으로서의 철도 산업을 육성하는 데에는 공정하고 엄격한 그러나 산업 친화적이며 효율적인 승인이 차지하는 역할이 막중함을 인지한다.
5. 우리는 COVID-19와 같은 팬데믹 상황에서 철도종사자와 이용객의 건강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제적 유행 질병에 대한 방역 정책 및 대처 방안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공유할 필요성을 인지한다. 또한, 팬데믹 상황에도, 안전을 포함한 철도정책의 본질은 지역 연결성과 접근성을 개선하여 지역사회, 경제, 문화적 삶의 질을 고양하는데 있음을 주지한다.